

전경일씨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삶의 평균화에 대해 잘 표현했더라고요. 40대에는 욕망과 책임의 평준화가 일어난답니다. 누구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발버둥치며 달려가구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뛰는 이 나이는 욕망과 책임의 평준화 연령이래요. 50대에는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분이나 아는 게 다 거기서 거기랍니다. 살면서 얻는 지식이란게 비슷하다는 뜻이겠죠.

6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데요.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고 썼네요. 나이 들면 화장하고 분 발라도 윤기가 흐르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0대에는 성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남성 여성이 크게 구별되지 않는데요. 80대에는 부의 평준화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고 사는게 별차이 없습니다. 하루 세끼면 족합니다. 90대에는 생사의 평준화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으며 살아 있어도 죽은 것만 못한 경우도 있다는거죠. 100세 이상이면 드디어 자연속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를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며,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내 삶을 내것이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자유하시고 감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환난이나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은 참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만나거든" 헬라 말로[페리 토] "직면한, 둘러싸이다"로 사용되었어요. 시험은 우리를 둘러싸고, 시험은 우리를 우겨쌈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더 큰 문제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시험이 있다' 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12:10).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함으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예요. 그 땅에도 여전히 싸움이 있구요, 기근도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멀리보면) 맞는 말이면서 (가까이 드러다보면) 틀린 말이기도 해요.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유혹도 많구요, 낙심케 될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치는 걸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에베소서 6:12).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길 문제들이 믿음으로 살고자할 때 훨씬 더 많이 생겨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지금까지 살던대로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 삶을 바꿔가야하니깐 내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서로간에도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사명도 받았는데 이전보다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에 손해 보는 일들이 하나 둘씩 터집니다. 속도 터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모든 걸 버리고 말씀만 붙잡은거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연속되나...” 낙심하게 되요. 이게 시험이죠! 하나님의 온갖 약속이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기근이 왔다는 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둘 중 하나죠! 그냥 생긴대로 살자?! (지금까지 예수 안믿고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자) 하던지, 아니면 그래도 그 길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만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믿음의 삶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시련’은 피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이 말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 준대요! 누구나 지금 내가 당장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켈 힘들어요. "인내" 헬라말로 [휘포모넨]은 "견고함"을 말하더라구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바로 내 믿음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한가지 재미있는 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연단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된다’ 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인내"로부터 연단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시련과 인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거죠!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 ‘그냥 버텨라’ 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완벽하게 인내하라는게 아니에요! 어느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온전히란 말은 헬라말로 [텔레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끝’을 말하는 [텔로스]에서 파생되었어요. 다시말해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 [텔레이온]은 "성년"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믿음이 장성하는, 어른과 같이 성장하는 걸 말해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13:11).

이 뜻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아이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십니까? 장성한 믿음은 인내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나 보면, 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테스트받고 다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만 남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때는 지나치게 정의로울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참 놀라운 이중성일 수 있어요! 다시한번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면 시련/시험을 통해 채워집니다. 시험을 한번 통과하면 한 부분이 메워지구요. 하나님 안에서 또 한번의 시련을 겪으면 또 한 부분이 메워집니다.

해서 이전에는 철저히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구요.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이 시련을 통과하면 인내를 배워요. 늘 분쟁케 했던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시련을 통과하면 화평케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하구요. 또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자에게 남겨진 조그만 책임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살던대로 살던지, 아니면 믿음 안에 인내하며 기쁨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오늘도 빛어지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마음판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데, 앙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동사] 1.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2.공경하고 흠모함. 간절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누구를요?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람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내 수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말이 쉽지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앙망하다” 는 말을 잘 음미하고 마음판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앙망하다” 의 히브리어 말은 [카바:qavah]라고 합니다. 카바는 한마디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 “함께 묶다(bind together, gather together)”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 때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함께 묶게 되는 것이 앙망하다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의미가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묶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평안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에드워드 모우트는 1797년 태어났는데, 그의 가정은 선술집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가난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구요, 자라는 환경 또한 좋지 않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길에서 떠돌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열등감과 반항심으로 인해 길거리를 헤매면서 폭력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를 따뜻하게 맞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한 가구 공장에서 목공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구 공장 주인이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 공장주인은 에드워드를 교회에 데리고 나갔고, 그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일 후, 에드워드는 그 일을 일기에 썼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으며,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신용도 얻어 수입이 좋아졌고,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에드워드는 너무나 행복한 목공이 되어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가구점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망 없었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렴구를 먼저 적어 내려 갔습니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이마 8: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막힐 웅덩이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